

투데이 칼럼

삶에 대한 고요한 성찰

나
이가 70을 넘는 즈음이
되면 무엇을 얻거나 오
를 것에 대한 회고보다
지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느
끼고 있는기에 대한 성찰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
아온 것조차 축복이지만 앞으로
의 여생에서 그다지 욕심을 부
리지 않아야 되겠다거나 그래서
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후덕한 품격을 쌓은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젊어서 열정을 가
지고 욕심을 부리며 했던 일이
때로 자신만의 환락에 치우쳐
누군가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
었던 것이 지금에서 성찰해보면
그럴 가치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헤
아려 보게 된다.

사람들은 때로 헛된 생각은 물
론 차감속에 살곤 한다. 자신의
아이가 영재 또는 재능이 수준이



홍민기

전 김제경찰서 경무과장

라던가 자신은 뭔가 특별한 사
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
다. 삶을 긴 안목에서 보면 사인
곡선 같다.

행복과 불행, 기쁨은 물론 고통
이나 슬픔, 헤어나기 힘든 장애
가 있는가하면 폐속열차처럼 질
주하는 시절속에 있기도 한다.
자신의 삶만이 어떤 드라마 같
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러니이
다.

삶을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살

아온 사람일수록 '인생무상'을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되도록 삶을 바르
고 성실하게, 선하게 살려했던
사람일수록,

때로 현실의 고통은 있었을지
라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의 여
운이 길다는 것이다. 나이들어도
과육으로 세인의 비난을 받으며
바르지 못한 생각, 상식을 벗어
난 언행으로 여생을 꾸려가는
것은 죽음도, 사후에 대한 생각

도 운통 두려움이 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유한의
삶, 윤회의 영혼일지라도 지금의
생명은 숨을 거둠과 함께 모든
것은 제로가 되고 만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한들 진 세계
80억 인구의 한명일 뿐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따스
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에도 기
꺼이 법을 어기고 범죄하며 세
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밟고
또 밟다. 존경받으며 미음의 평
화속에서 조용히 하늘에 오르지
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 받는 삶
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꽤
청한 하루(경생)를 잘 꾸렸기
때문이다. 그 노을은 자물고 나
서도 한시간 넘게 환상적인 매
직아워((magic hour, 블루아워))의
여운을 남긴다. 자신의 삶이 그
리하도록 하고 싶은 생각은 없
는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공습 가옥 잔해 살피는 사나 주민



24일(현지 시간) 예멘 사나에서 한 주민이 미국의 공습으로 파손된 집 잔해를 살피고 있다. 현지 언론은 25일 밤 미군이 수도 사나의 주거용 건물과 북부 시다에 공습과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37일 만에 퇴원



페럼으로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23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아고스티노 제
멜리종합병원에서 퇴원하기 앞서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08-80 승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보이스피싱 AI 알림

보이스 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교활해지고 있다. 최근 KT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를 경고하는
'AI 보이스 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밝혔
다.

KT는 이 서비스로 작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
제 샌드 박스'에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어 오는 2분기 중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 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
(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관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
준의 보이스 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자주 쓰
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
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 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이번 조치로 보이스 피싱 범
죄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기대
한다.

벼랑 끝 홈플러스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가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
(이하 MBK)의 긴급 기업회생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MBK의 입장과 달리
유통업계에선 매각 가능성은
비롯해 최악의 경우 폐업과 해
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홈플러스의 금융 부채 2조원
가운데 1조2000억 원을 보유한
메리츠금융 3사가 내년 말까지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
을 잡은 이후 절포 자산 매각
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126개 대
형마트와 310여개 기업형슈퍼
마켓(SSM) 매장을 운영 중이
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가 자
산으로 보유 중인 대형마트 매
장 60여개에 대한 담보권을 갖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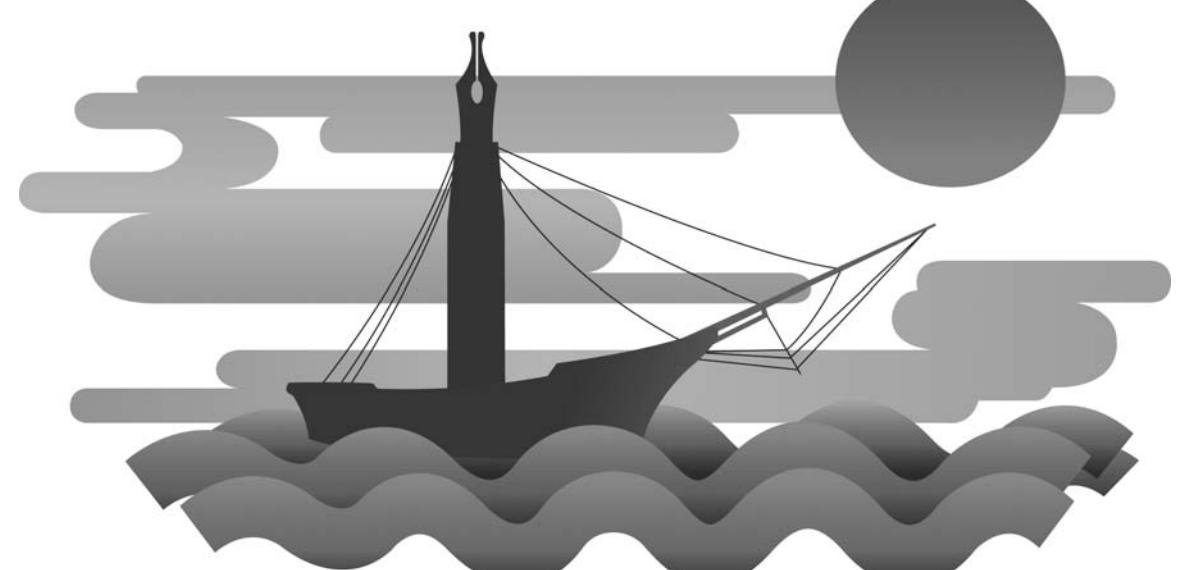
하지만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을 설정한 60여개 절포의 '통
매각(일괄 매각)'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 업계 일각에선 익
스프레스 매각 가격이 대폭 낮
아지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사들
여 신선 신품 신속 배송을 위
한 물류기지로 활용할 가능성
도 거론된다.

과거 킴스클럽마트의 매각 사
례처럼 30~40여개 매장씩 분
할 매각할 것이라 관측도 있
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
에 오는 6월 3일까지 금융 부
채 상환과 자산 매각 등 구체
적인 회생 계획을 밝혀야 한
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업계 예상
대로 '분할 매각' 방침이 공식
화되면 회사 노조의 반발이 거
세질 것으로 보인다. 절포 분
할 매각은 사실상 회사 해체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홈플러스는 폐업하면 직고용
한 2만여 명의 직원과 테넌트
(임차인), 협력사 직원 등 직
간접적으로 10만여 명의 직원
이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